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이연경**

이승중***

〈目 次〉

- | | |
|----------------------|------------------|
| I. 서론 | IV. 분석 자료와 연구 설계 |
| II. 행복의 상대성 논쟁과 연구문제 | V. 분석 결과 |
| III. 사회계층과 행복 | VI.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Easterlin의 역설이 촉발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보완적 관심이 필요하다. 인간의 사회적 지위경쟁 욕구를 고려하여 사회계층의 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객관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주관적 인식 및 지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사회계층을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모두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 계층변수의 하위요소별로 세분한 분석에서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간의 '격차'가 행복의 주요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는 객관적 계층 외에 주관적 계층의식과 양자 간 괴리가 중요요인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는 데서 주목된다.

【주제어: 사회계층, 행복,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의식, 격차】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 B1010910).

** 제1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hafalored@gmail.com)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slee@snu.ac.kr)

논문접수일(2017.1.3), 수정일(2017.3.5), 게재확정일(2017.3.14)

I. 서론

경제 성장이 행복¹⁾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행복 연구의 오랜 논쟁거리이다.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속성장으로 최단기간 내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으나,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성장이나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대체로 경제적 성과가 행복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성장이 행복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행복이 공공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런 점에서 최근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도 행복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²⁾

그렇다면 객관적, 절대적 소득의 증가에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은 행복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Diener et al., 2004; Layard, 2005).³⁾ 즉,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인지되는 ‘평가’가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진 ‘지위(status) 경쟁’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절대적 조건이 그 자체로 의미 있다기보다, 조건에 대한 해석, 특히 사회 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는가가 행복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복이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라는 점에서 평가와 해석, 인식의 중요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말하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게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정체, 양극화의 심화, 사회이동성의 저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점차 분배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사회계층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⁴⁾ 이런 점에서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도 ‘사회계층’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
- 1) 행복(happiness)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로,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Veenhoven, 1999), 혹은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Graham, 2011)로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을 상호 밀접한 유사개념으로 보고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Graham, 2011)
 - 2) ‘해피수원시’, ‘해피700평창군’ 등과 같은 명칭들이 지방정부 브랜드로 사용되는 등 행복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승중 외, 2013).
 - 3) 행복의 영향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 환경적 요인은 다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 제도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 4) 한국의 경우, 아직은 이해관계 균열에 의한 사회계층 갈등이 표출되는 단계는 아니나, 향후 사회계층 간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평가가 있다(안상훈,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행복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사회계층을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측면으로 구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행복의 상대성 논쟁’으로부터 연구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기존 문헌에 근거하여 가설을 도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의 「2014 정부 역할과 삶의 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행복의 상대성 논쟁과 연구문제

1. 행복의 상대성 논쟁

본 연구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에 주목한다.⁵⁾ ‘Easterlin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로 촉발된 이 논쟁은 객관적 조건인 소득의 증가가 행복을 증대시키는가에 대한 것이다. 1974년 Easterlin⁶⁾은 19개국의 서베이 자료(1946년~1970년)를 분석하여, 횡단면 분석의 경우, 소득과 행복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시계열 분석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행복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물질적, 양적 성장이 행복(효용, 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암묵적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후 본격적인 행복 연구를 촉발시켰다. 즉 실제 이 주장이 맞는지(행복의 상대성 논쟁⁷⁾), 또 이 주장이 옳다면, 왜 소득의 증대에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행복의 상대성 논쟁은 Easterlin의 주장처럼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소득의

5) 이 논쟁이 의미 있는 이유는 첫째, 자명한 선(self-evidently good)이자 목표인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Layard, 2005), 생산중심의 발전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beyond GDP’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흐름을 촉진시켰고, 둘째, 객관적 조건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행복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데에 있다. 즉, 행복은 객관적 조건의 충족만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 조건이 작동하는 내적 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 Easterlin은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거의 최초의 경제학자로 평가받고 있다(문진영, 2012; Oswald, 1997).

7) Easterlin의 1974년 논문 발표 이후,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는데, 본 논문은 이 논쟁을 ‘행복의 상대성 논쟁’이라 칭하도록 하겠다.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과, 소득의 증가는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즉 소득의 증감이 행복의 증감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주장 간의 대립을 말한다. 소득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학자들(Easterlin, 1974; Inglehart et al., 2008; Layard, 2005; Luttmer, 2005)은 그 이유를 타인과의 비교(social comparison)나 적응(adaptation) 등으로 설명하고, 소득의 절대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학자들(Hagerty et al., 2003; Veenhoven, 1990)은 타인과의 비교나 적응으로 변할 수 없는 생래적이고 필수적인 욕구(needs)를 들어, Maslow(1970)의 욕구이론에서처럼 욕구가 더 많이 충족될수록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주장 간의 대립은 다양한(대상, 기간, 새로운 개념⁸⁾)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처럼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Veenhoven(1990)의 주장처럼 비교나 적응으로 바뀌거나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인정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유래 없는 경제 성장을 보였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정도는 전 세계에서 그리 높지 못한 실정이다(구교준 외, 2014; 김윤태, 2010; 문진영, 2012; 우창빈, 2013)이다.⁹⁾

그렇다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행복의 상대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첫째, ‘불행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의 증가’, 둘째, ‘생활수준에의 적응’, 셋째, ‘타인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고 싶은 인간의 욕구(지위경쟁 욕구)’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소득이 증가한 시기에 불행감을 증가시키는 요인들 또한 증가하여, 소득의 증가에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행감을 증가시키는 요인 들로는, 실업, 범죄, 가정 붕괴의 증가로 인한 ‘사회 안정성’의 하락, 사회의 이동성과 익명성의 증대에 따른 ‘신뢰’의 하락,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Graham, 2009; Layard, 2005).

둘째,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여 행복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곧 새로운 ‘삶의 수준에 적응(adaptation)’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의 행복수준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8) Veenhoven과 Hagerty는 2006년 Easterlin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펴는 논문에서 ‘행복한 인생 햇수(Happy Life Years)’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소득이라는 변수가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반해, 행복이라는 변수는 최고점수(최도에 의거)의 한계가 있고, 따라서 행복 변수의 변동 폭이 작고, 그마저도 오르내림이 있어, 행복을 대신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문진영, 2012:65).

9) 유엔이 2016년 3월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57개국 중 58위로 작년보다 11단계 낮아졌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같은 객관적 지표는 좋은 편이지만 주관적 행복감은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6. 6. 15; 정해식, 2016).

것이다. 즉, 습관의 형성(habit formation)으로 개선된 삶의 수준에 적응이 일어나고,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져, 절대소득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행복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행복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말하는 Brickman and Campbell(1971)의 ‘쾌락의 쳇바퀴(hedonic treadmill)’ 개념이나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행복 적응(happiness adaptation)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이 부가되어도 더 이상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적응기대감(adaptive expectation)(문진영, 2012)으로 설명될 수 있다.

셋째,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지위경쟁 욕구’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만족감, 행복을 느끼게 되며, 이때의 지위 경쟁 욕구는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다(Frank, 2011; Graham, 2009; Layard, 2005). 즉 행복은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수준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Clark et al., 1996; Frank, 2005; Layard, 2005; Luttmer, 2005), Veblen(1899)의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나 Dusenberry(1949)의 ‘상대소득 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과 맥을 같이 한다(우창빈, 2013). 그런데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사회적 지위 경쟁은 본질적으로 제로섬(zero-sum) 게임의 성격을 띠어 행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를 Hirsh(1976)의 지위재(positional goods)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Hirsh는 한 사회는 물질재(material goods)를 공급, 확산시켜주는 경제성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특정 지위를 둘러싼 지위재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한다. 가치가 거의 전적으로 타인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지위재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서, 재화와 서비스의 전체 공급량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과 절대 소득의 증대에도 전 사회 구성원이 더 행복해지지는 못하는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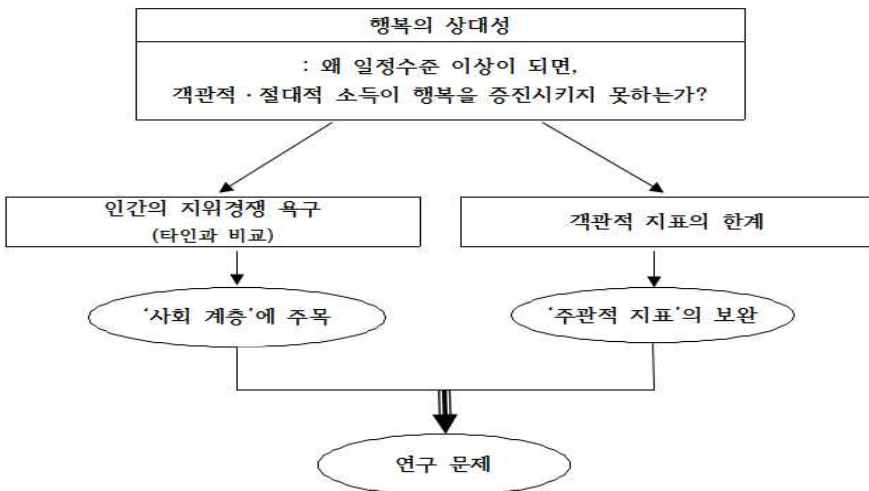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타인과의 비교’,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경쟁’ 측면을 보면,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개인의 행복도 사회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와 평가에 좌우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때 사회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는 객관적 조건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인식 측면까지를 포괄한다. 객관적 조건 상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은 다를 수 있고,¹⁰⁾ 행복은 객관적 지위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지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 때문에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부조응(일치성) 문제가 사회계층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다 하다(Vanneman et al., 1987).

이처럼 행복에 있어 객관적 조건 측면만이 아니라 주관적 인식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 지표, 물질적 요인 못지않게 주관적 지표, 심리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윤태, 2010; 신승배, 2015; 장승진, 2011; 한준 외, 2014; Easterlin, 1995; Johnson et al., 2006; Stiglitz et al., 2009). 객관적 지표는 개인의 평가와는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이고, 주관적 지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평가를 측정하는 것이다(한준 외 2014:5). 주관적 지표의 정책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과학적 관리에 야기할 수 있는 비합리성이 문제시 될 수 있지만, 행복이 주관적 만족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된 주관적 지표를 행복연구에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한준 외 2014:5). 만약 측정 결과가 객관적 지표와 어긋난다면 그것은 측정의 오류가 아닌, 그 자체로서 공중의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서, 주관적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음을 방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¹⁾(한준 외, 2014:6). 또한 객관적 조건의 향상이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행복에 미치는 주관적 의식, 지표의 영향력을 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양자간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양자 간 격차가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문제의 도출



11)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행복 연구에 있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주관적 웰빙)에 대해 모두 활용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반해, 네덜란드만이 객관적 지표를 고수하고 있다(한준 외, 2014:6).

2. 연구문제

사회 내의 상대적 지위를 나타내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특히, 사회계층을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사회계층과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사회계층으로 나눌 때, 이 둘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측면의 사회계층이 행복에 더 영향을 미치는가? 아울러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사회계층과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사회계층의식 간의 ‘격차’가 독자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행복에 미치는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다면, 실제와 인식과의 격차도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사회계층과 행복

1.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사회계층

사회계층은 사회 내의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그 구분과 접근법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접근법으로 계층의식의 형성배경에 대해 생산관계에 입각한 ‘마르크스주의적 시각’과, 소득, 직업, 교육 등의 사회경제적 시장자원의 보유 수준을 강조하는 ‘베버주의적 사회계층이론’의 구분이 있다(이병훈 외, 2006:114; 장상수, 1996; Vanneman et al., 1977). 한국의 경우 서구와 같이 노동자들의 배타적 지지에 기반 한 거대 노동자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규모의 노동계급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특성상, 마르크스적 계급 개념보다는 베버의 지위집단으로서의 개념이 유용한 접근법으로 보인다(강원택, 2014:67-68). 즉, 한국의 경우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초점을 둔 계급이나, 단순한 소비수준을 의미하는 소득계층보다는 비경제적인 요소(생활양식이나, 교육, 직업적 위신 등)를 고려하는 베버의 지위집단 개념이 더 적실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강원택, 2014; 이재열, 2014; 조동기, 2006; 홍두승, 2005). 따라서 본 연구도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하며, 공동체 내에서의 지위에 주목하는 베버의 지위집단 개념에 근거하여 사회계층을 본다.

한국에서 사회계층연구는 ‘계층구조’에 집중되어 있었고,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지만(김병조, 2000), 최근 주관적 계층의식에 주목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관찰가능하고 분해가능한 객관적 조건만으로 계층을 파악

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포괄적이며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의 인식에 주목함으로써, 계층의 의미나 실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금현섭 외, 2011: 62).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에 관한 사회계층연구는 크게 양자간 ‘일치성’에 관한 연구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대별된다.

먼저 ‘일치성’ 연구의 경우,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간에는 높은 상관성은 있지만(Vanneman et al., 1987)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결론이다.¹²⁾ 이때 ‘객관적 계층’은 소득, 교육, 주거, 직업 등 사회계층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추출되며, ‘주관적 계층의식’은 주로 사회의 계층구조 속에서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등 차이를 보인다(금현섭 외, 2011; 윤인진 외, 2008; 이병훈 외, 2006). 양자 간 측정이 일치하지 않는 한,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나누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서로 독자적 영역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객관적 사회계층 요소들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 연구의 경우, 국내외를 불문하고 소득, 교육, 주거 등(객관적 계층지표)을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한다¹³⁾(김경동 외, 1983; 장상수, 1996; Jackman et al., 1983; 신광영, 2003; 이병훈 외, 2006). 이때 객관적 계층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 교육, 직업 등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체계로서의 객관적 사회계층이 각기 다른 삶의 기회와 생활양식을 낳고, 이를 통해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윤인진 외, 2008; Kriesberg, 1963; Matras, 1975; Turner, 1984).

이처럼 객관적 계층과 계층인식 간에는 상당 부분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격차가 있는 한, 양자 간 상대적 중요성이나 격차의 크기가 행복수준에 대하여 갖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12) 우리나라의 경우, 객관적 지표를 통해 추출되는 중간계층의 비율보다 중간층 귀속의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실제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어느 정도 과대평가되고 있는데(홍두승, 1983:184), 이는 사람들이 사회의 계층구조 속에 자신을 중간에 위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심리학적 설명과 개개인이 자신이 유사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들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자신의 계층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 요소로 설명되고 있다(김병조, 2000).

13) 연구마다 이들 지표 간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Jackman et al.(1983)은 직업>소득>교육 순서를, 국내의 다수 연구 결과(김병조, 2000; 서광민 2009; 조동기, 2006)들은 소득>교육>직업 순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관점에서 사회계층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개념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학자들(강원택, 2014; 이재열, 2014; 조동기, 2006; 최인철, 2014)이 활용하고 있는 홍두승(2005)의 중산층을 분류하는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홍두승(2005)은 중산층 판별을 위해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구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객관적 판별기준으로 ‘직업’, ‘소득’, ‘자산(주택)’, ‘교육’을, 주관적 기준으로는 ‘중산층 귀속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마다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여 조금씩 상이한 개념화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을 크게 ① 소득, ② 교육, ③ 주거 측면으로 구성하고, 각각에 대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¹⁴⁾ 또한 조건과 인식간의 차이 변수를 생성하여 ‘격차(불일치의 정도)’ 변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런 분석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다음의 <표 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사회계층¹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년도	연구자	사회계층						비고
		객관적 사회계층				주관적 계층의식	격차	
		소득	주거	교육	직업 (고용)			
2008	윤인진 외	●		●	●	●		
2010	강성진	●	●	●	●		거주 지역 평균소득 고려	
2011	장승진	●		●	●		●	격차변수: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2013	이양호 외	●		●	●			가정경제/정치상황만족도 변수 활용
2013	최령 외	●		●	●	●		
2014	한준 외	●		●			●	
2014	구교준 외	●		●			●	
2014	이현국 외	●	●		●			
2014	최인철	●	●	●	●	●		
2015	박종선 외	●	●	●	●		●	
2015	서인석 외	●		●				
2015	신승배	●		●	●	●		일/가정생활/가계경제 만족도 변수 활용

14) 다만 객관적 판별 기준에서 ‘직업’이 중요한 요소(강원택, 2014; 윤인진 외, 2008; 이재열, 2014; 조동기, 2006; 홍두승, 2005)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데이터에는 직업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에 대응할 (직업에 대한) ‘주관적 계층 의식’ 자료가 없어, 사회계층의 구성요소로 ‘직업’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변수로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다.

15) 정확하게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최인철(2014)의 연구뿐이다. 최인철(2014)의 연구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사회계층의 구성요소별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변수를 함께 매칭 시켜 고려한 점에서도 유사하다. 또한 사회계층의 구성요소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그리고 양자 간 격차가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에 의하여 분석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객관적 및 주관적 계층의 하위요소별로 행복수준과의 연관성도 아울러 분석한다. 이 같은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다. 첫째, 기존 연구는 행복요인으로서의 ‘사회계층’에 접근함에 있어서 부분적 접근을 하는 한계를 보인다. 대개의 연구는 객관적 사회계층의 구성요소인 소득, 교육, 주거, 직업 등을 별개의 행복 영향요인으로 다루면서, 이들을 통합적 상위 개념인 사회계층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다른 일부 연구가 ‘주관적 계층의식’을 단일의 지표(“한국 사회에서 나의 위치”)로 다루고는 있으나 대신 그 구성요소(소득, 주거, 교육, 직업 등)별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계층 차원 및 계층의 하위요소별 분석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편린성을 보완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간 격차를 측정하여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일부 연구에서 객관적 계층과 계층인식 간 ‘격차’에 대하여 접근하고 있지만 격차변수를 독자적인 설문문항을 통해 추출하면서 실제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간의 격차를 측정해내지는 못하고 있다.¹⁶⁾ 즉, 설문문항으로 추출한 ‘격차’변수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사이의 격차라기보다, ‘격차에 대한 인식, 평가’ 변수라는 데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격차와는 거리가 있다.

2. 연구 가설

행복의 결정요인 연구들이 지목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소득, 교육, 직업, 주거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는 사회계층의 ‘객관적 조건’ 측면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사회계층은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행복과의 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Easterlin의 역설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소득’은 절대소득, 상대소득 측면에서 행복의 주요 변수로 다뤄져왔다(최말옥 외, 2011; Diener et al., 1995; Easterlin, 1974; Frey et al., 2002; Graham, 2009; Layard, 2005). ‘교육’도 행복의 주요

로 소득, 재산, 교육, 직업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 사이의 ‘격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고, 기타 ‘데이터’와 ‘행복 측정 방식’에서도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16)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격차를 본 연구에서와 같은 의미로 다루는 연구로는 한준 외(2014)연구와 백종선 외(2015) 연구가 있다. 한준 외(2014) 연구는 소득측면에서의 격차이며, 격차의 ‘방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백종선 외(2015)의 연구는 본 연구와 같이 격차의 ‘정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소득측면만을 다루며,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격차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변수로 일반적으로 정(+)의 관계에 있다(최말옥 외, 2011; Campbell, 1976; Helliwell et al., 2004; Graham, 2009; Oswald, 1997)는 연구가 일반적이다. ‘주거’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생활수준과 불평등수준을 가늠하는 핵심자료로 볼 수 있다는(이병훈 외, 2006)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데, 주거형태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연구가 있다(최말옥 외, 2011; 최인철, 2014).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객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질 것이다.

‘객관적 계층(소득, 교육, 주거)’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 못지않게, 비교적 최근에는 행복의 영향요인으로서 ‘주관적 계층의식’에 주목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Oshio et al(2011)는 중국,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 계층의식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이지은 외, 2014). 이처럼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의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신승배, 2015; 윤인진 외, 2008; 이병훈 외, 2006; 한준 외, 2014). 이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계층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 Campbell 외(1976)가 있다. 그는 사람은 객관적 환경이 아니라 그가 인지한 환경에 반응한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행복과 더 강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Mammen(1980) 역시 ‘소득’(객관적 지표)보다는 ‘소득의 적정성’(주관적 지표)에 대한 판단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한다. 국내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 구재선 외(2011)는 객관적 소득 즉, 소득 자체보다는 소득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행복과 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객관적 삶의 여건보다 심리적 요인이 행복을 더 잘 설명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3: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격차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관한 연구는 드물며, 격차(실제와 인식의 불일치)의 ‘방향’측면에만 연구가 한정되어 있다. 자신

의 객관적 소득계층에 비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하향 불일치) 삶의 만족 수준이 낮다는 연구(한준 외, 2014),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의식이 실제 객관적 소득계층보다 높은 경우(상향 불일치) 서로 일치하는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이 더 양호하다고 밝히는 연구(박지은 외, 2015)가 그 예이다.¹⁷⁾ 본 연구에서는 격차의 방향이 아니라 격차의 '정도'에 따른 행복의 효과를 탐색할 것이다. 실제와 인식의 불일치가 크다는 것은 왜곡된 인지나 방어적 심리 기제가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행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도록 한다.

가설 4: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격차가 클수록 행복이 낮을 것이다.

〈표 2〉 연구 가설

사회계층의 영향력	H1	객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질 것이다. :소득, 교육, 주거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질 것이다.
	H2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질 것이다. :소득, 교육, 주거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질 것이다.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대적 영향력	H3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격차'의 영향력	H4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격차가 클수록 행복은 낮을 것이다.

IV. 분석 자료와 연구 설계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2014 정부 역할과 삶의 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이하 국민인식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데이터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과 범위

17) 계층의 상향불일치나 하향불일치가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낙관수준'에 따른 심리적 반응이라는 견해(Rasmussen et al., 2009)가 있는 반면, 객관적 조건이 우세하여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Boehm et al., 2015)이 있다. 다만 이런 계층 불일치가 어떤 방향으로든 행복과 관계가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계층 불일치를 구분한 분석은 필요하다 할 수 있다(박지은 외, 2015:101).

는 무엇이며, 이러한 판단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국민인식조사 데이터는 ‘삶의 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부분과 ‘중산층과 불평등에 의한 의견’을 묻는 부분에서 행복, 중산층에 대한 기준 및 스스로의 계층의식에 관한 다수의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전의 데이터들이 주관적 계층의식을 단일의 항목으로 묻고 있는 데 비하여, 본 데이터는 소득, 금융, 주거, 교육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계층(귀속) 의식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표본크기는 유효표본수 총 5,940명이다. 조사방법은 1:1 면접 조사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법으로 총 4단계에 걸쳐 선정, 조사되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pm 1.3\%p$ 이며,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2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약 54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하여 진행되었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행복

행복 측정은 여러 기관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는데, 크게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경우와 여러 문항으로 측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나 영국 통계청(ONS)의 조사가 있고, 후자의 경우, OECD에서 제안하는 주관적 행복측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UN 세계 행복보고서가 있는데, 이 경우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만족감, 정서경험, 의미경험의 3가지 측면을 동시에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귀하는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설문문항, 즉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다.¹⁸⁾ 기존 문헌의 다수가 단일 문항으로 행복을

18) 주관적 판단에 의거한 행복의 측정은 진정한 행복의 수준과 별개로 심리적인 방어기제(ego defense)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대한 고려로 부정확한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행복)에 대한 응답은 상당한 정도의 개인 내 안정성과 개인 간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장승진, 2011). 그리고 주관적 판단 역시 다양한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생활환경의 변화와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 등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Diener et al., 1999; Frey et al., 2002; Kahneman et al., 2006; Layard, 2005).

측정하고 있으며(김병섭 외, 2015; 신승배, 2015; 이현국 외, 2014),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여도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현국 외, 2014). 측정에는 11점 척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 ↔ ㉡ 매우 행복하다)가 사용되었다.

2) 독립변수

앞서 언급하였듯, 독립변수인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홍두승(2005)의 중산층 판별을 위한 분류 기준에 근거 한다.¹⁹⁾ 홍두승(2005)의 중산층 판별기준은 <표 3>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짙은 음영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홍두승(2005)의 중산층 분류 기준

기준	차원		주요변수	
객관적	경제적	생산·소유관계	직업	명칭
				종사상의 지위
		소비·경제수준	소득	가구소득
			자산	금융, 부동산(-) 주택)
	사회 문화적	학업성취	교육	양(교육 년 수)
				질(학교의 명성)
	문화		중산층 문화	
주관적	귀속의식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출처: 홍두승(2005:96-97) 표5-2 재구성

(1) 독립변수 1 : 객관적 계층

① 소득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

소득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은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임대소득, 예금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주십시오.” 문항으로 측정한다. 측정은 총 15개 구간으로(① 월 49만 원 이하부터 ~ ⑧ 월 350 ~ 399만원까지는 49만원 단위로, ⑨ 월 400~499만원부터 ~ ⑮ 월 1,000만 원 이상은 99만원 단위로) 구성되었다.

19) 홍두승(2005)이 제시한 객관적 기준 중에서도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교육의 질’과 ‘중산층 문화’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나, ‘객관적 계층’의 경우 객관적 지표로 추출된 사회계층 조작화가 필요한 것이기에, 주관적 판단을 필요한 요소를 제외시키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겠다.

② 교육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

교육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은 “귀하가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재학 중인 분은 현재 다니고 계신 학교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으로 측정한다. 8개 척도(① 미취학 ~ ⑧ 대학원 박사 이상 졸업(재학))로 구성되어있다.

③ 주거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

주거 측면에서의 객관적 계층은 “귀하의 가구 및 가족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택보유 여부” 문항으로 측정하며, 척도는 4개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반전세), ④ 기타(적을 것:))로 구성되었다. 분석에서 ④ 기타(n=30)는 ③ 월세(반전세) 문항과 합쳐서 처리하였고, 다른 변수들과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역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④ 단일지표로서의 객관적 사회계층: 객관적 ‘통합 사회계층’

앞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는 사회계층의 구성요소를 소득, 교육, 주거로 보고, 각 구성요소별로 분석한다. 그러나 소득, 교육, 주거 정보를 통합한 ‘단일지표로서의 사회계층’(이후 ‘통합 사회계층’)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소득, 교육, 주거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통합한 단일 지표로서의 사회계층 변수를 생성한다. 이 또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의식으로 나눠 분석한다.

본 연구는 홍두승(2005)의 중산층 산출 방식에 의거해 사회계층을 크게 3개(상,중,하)의 계층으로 분류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수준, 교육수준, 주택보유 상황을 고려하여, 중산층 점수를 구한 후, 점수를 기준으로 사회계층을 분류한다. 여기서는 여러 선행 연구 및 본 데이터의 중산층 기준에 대한 설문 문항을 고려하여, 소득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1점, 교육의 경우 전문대 이상 1점, 주거의 경우 자가 보유에 1점을 주었고, 합산해서 3점인 경우 ‘상’, 2점인 경우 ‘중’, 1점 이하의 경우를 ‘하’로 구분했다.²⁰⁾

20) 중산층 조작적 정의에 관한 논의는 ‘한국 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한상진, 1987) 논문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고, 이후 대체로 홍두승 교수가 제안한 기준, 즉 소득, 교육수준, 주택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절충하는 방식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이재열, 2014:125). 그럼에도 중산층 산출 방식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학계에 합의된 기준이 없다. 합의된 중산층 산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본 연구의 경우, 본 연구의 데이터의 설문문항 중 “귀하가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을 응답해 주십시오.”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근거로 삼았다. 소득의 경우, “세후 한 달 월 소득(1만원 정도)”라는 응답의 평균값인 528.7만원을 고려하여,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으로 기준을 설정하였고, 교육의 경우, “교육수준 -1) 고졸이상, 2) 전문대졸 이상, 3) 4년제 이상, 4) 석박사 이상”설문 응답의 평균값인 2.38을 고려하여 ‘전문대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주택의 경우, 아파트 평수와 매매가 기준 설문 응답 값을 활용하고 싶었으나, 주택에 관한 평수, 매매가 정보가 없고, 거주 주택유형(자가, 전세,

〈표 4〉 본 연구의 객관적 사회계층 분류 방식

기준	차원	변수	측정	사회계층점수	사회계층 판별
객관적	경제적 (소비·경제수준)	소득	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 1점	소득+주거+교육 합산 기준 1점 이하 → 하 2점 → 중 3점 → 상
		주택	자가 보유 여부	자가 → 1점	
	사회·문화적	교육	교육 년 수	전문대졸 이상 → 1점	

(2) 독립변수 2 : 주관적 계층

① 소득/교육/주거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대부분의 연구는 주관적 지표로 ‘주관적 계층의식’을 단일 설문문항으로 구성, 측정하고 있다(신승배, 2015; 윤인진 외, 2008; 최령 외,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서도 소득, 교육, 주거 각각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계층 구성요소별로 각각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소득/교육/주거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다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다음 사회계층 중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문항에서 ‘월 소득 수준’/‘교육수준’/‘주거수준’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9개 척도(① 하의하 ~ ⑨ 상의상)로 구성되어 있다.

월세(반전세, 기타) 정보만 활용할 수 있어, 여기서는 ‘자가 보유’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중산층 산출 방식에 합의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중산층 산출 기준들은 연구 목적과 가용 데이터의 한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또한 이들이 적용한 기준들은 연구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기준을 차용하는 것보다 응답자 스스로 중산층의 기준을 제시한 문항 결과를 따른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선정 기준이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는 다음의 선행연구에서의 중산층 산출 기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월소득의 경우 홍두승(2005)은 도시가구 월평균소득의 90%를 기준으로 삼았고, 조동기(2006)는 월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 가장 최근 연구인 이재열(2014)의 경우 월평균소득 400만원을 기준으로 1점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의 경우 홍두승(2005)은 대학교육을 받은 정도, 조동기(2006)는 2년제 대학 이상을, 이재열(2014)의 경우 전문대 졸업 이상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주거의 경우 홍두승(2005)는 자가 20평 이상, 전월세 30평 이상을, 조동기(2006)는 국민주택규모 전용 25.7평을, 이재열(2014)의 경우 30평을 기준으로 삼아 1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직업’에 따른 계급적 지위를 포함하여 3점 이상을 상층(핵심적 중산층), 2점 이상에 중산층(주변적 중산층), 1점 이하에 하층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득, 교육, 주택의 점수를 1:1:1로 합산한 것도, 특정 구성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할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논리적인 방안으로 보았다. 기존 연구들도, 제시한 기준을 넘은 경우 점수를 부여하고 이들의 (1:1:1) 합산을 기준으로 사회계층을 분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이 교육이나 주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2:1:1의 비중으로 분석해보아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② 단일지표로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통합 계층의식’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설문문항이 소득, 교육, 주거 측면으로 분리되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세 항목을 합산하여 상, 중, 하²¹⁾의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였다.

〈표 5〉 본 연구의 주관적 사회계층 분류 방식

기준	차원	변수	측정	사회계층점수	사회계층 판별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소득/교육/주거에 관한 주관적 계층의식	1 = 하의하 ~ 9 = 상의상	계층의식의 합산 (3점~27점 분포)	소득+주거+교육 합산 기준 3점 ~ 11점 -> 하 12점 ~ 20점 -> 중 21점 ~ 27점 -> 상

(3) 독립변수 3 : 객관적 계층 및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차이 (이하 ‘격차’ 변수)

앞서 언급했듯, 격차 변수는 기존 문헌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고, 다루더라도 별도의 설문문항을 통해 변수를 추출하므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의식 ‘변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 ‘격차’ 변수를 생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여기서는 객관적 계층 및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를 각각 표준화 시킨 후 그 차이에 절댓값을 씌운 값으로 ‘격차(정도)’, 즉 실제와 인식의 차이의 ‘크기’를 측정하도록 한다.

① 소득 측면에서의 격차

= | 소득의 객관적 계층 변수의 표준화 값 - 소득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표준화 값 |

② 교육 측면에서의 격차

= | 교육의 객관적 계층 변수의 표준화 값 - 교육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표준화 값 |

③ 주거 측면에서의 격차

= | 주거의 객관적 계층 변수 표준화 값 - 주거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표준화 값

21) 세 항목을 합산하면 3점에서 27점까지 분포하므로, 3점~11점까지를 ‘하’로, 12점~20점까지 ‘중’으로, 21점~27점까지를 ‘상’으로 구분하였다.

④ 단일지표로서의 ‘통합 사회계층’ 격차

앞서 도출한 객관적 ‘통합 사회계층’ 변수와 주관적 ‘통합 계층의식’ 변수를 활용한다.

$$= | \text{객관적 통합 사회계층} - \text{주관적 통합 계층의식} |$$

(하[0], 중[1], 상[2]) (하[0], 중[1], 상[2])

3) 통제 변수

(개인적 요인: 연령, 성별, 건강, 종교, 직업, 취업, 불평등인식, 사회적 신뢰, 수도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연령, 성별, 건강, 종교, 고용상태, 결혼²²⁾ 등)과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실업률, 물가상승, 성장률 같은 거시경제 지표나 사회적 관계나 불평등, 신뢰 등)이나 정치 제도적 요인(국가권력의 분권화 정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정부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사회계층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제변수 역시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는 연령, 성별, 건강상태, 종교, 직업유형과 취업상태, 거주 지역(수도권²³⁾) 등과 같은 개인의 조건 변수들과 ‘사회의 불평등 정도’,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 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변수를 고려한다.²⁴⁾ 또한 대부분의 사회계층연구에서 구성 지표로 삼는 직업(위세)은 다수의 연구(Campbell, 1976; Inglehart, 1990)에서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해당하는 주관적 계층의식 자료가 없는 바, 가용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고용 상황과 직무의 성격을 고려한 ‘직무 유형’과, 고용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취업 상태’를 통제변수로 삼아 영향력을 통제하도록 한다.

먼저 연령은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 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로 측

22) 결혼은 많은 연구(Blanchflower et al., 2004; Welsch, 2009)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에서 결혼에 대한 설문 항목이 빠져 이를 통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에 해당한다.

23) 거주지에 따라, 소득(경제활동기회), 교육의 기회, 주거환경 등 객관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비교 대상, 준거집단의 차이로 인한 사회계층 귀속의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수도권 혹은 거주지, 지역변수를 통제변수로 삼고 있다(윤인진 외, 2008; 박종선 외, 2015). 본 연구는 사회, 경제적 여건에 큰 차이를 보이는 수도권을 통제변수로 삼는다.

24)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사회 불평등(인식)’과 ‘사회적 신뢰’를 다루는 연구는 다수 있다(사회 불평등 - 이양호 외, 2013; 장승진, 2011; 조연상, 2012; Haller et al, 2006; Verme, 2011, 사회적 신뢰-장승진, 2011; 이지은 외, 2014; 구교준 외, 2014; 송한나 외, 2013). 사회의 불평등의 정도 및 사회적 신뢰 정도에 대한 평가는 행복의 영향요인임과 동시에, 자신의 사회계층의 인식 및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통제변수로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하’층에 속한 경우라도, 사회의 불평등 및 신뢰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사회계층의 의미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정하며, 만 19세 이상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1. 남자, 2. 여자”의 문항으로 측정하고 더미변수화(여성=0, 1=남자) 하였다. 건강은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십니까?”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척도는 3개(① 장애 있음, ② 장애는 아니지만 만성질환 있음, ③ 장애 없음)로 구성되었다. 종교는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5개(① 종교 없음[무교], ② 천주교 ~ ④ 이슬람교, ⑤ 기타(적을 것:))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 종교에 해당하는 ①에서부터 ④까지는 서열의 의미가 없으므로, 종교의 유무(0=무교, 1=유교)²⁵⁾로 더미 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직업은 ‘직업 유형’으로 측정하며, 척도는 ‘0=무직, 1=전업주부/학생, 2=일반직, 3=경영/전문직’, 4개로 구성하였다. 활용한 설문문항은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이었으며, 척도는 14개(① 농업/수산업/축산업 ~ ⑩ 공공기관 종사자, ⑪ 전업주부, ⑫ 학생, ⑬ 무직, ⑭ 기타(적을 것:))로 구성되어 있다. ⑬무직을 ‘무직’으로, ⑪전업주부와 ⑫학생을 ‘전업주부/학생’으로, ⑦경영/관리직과 ⑧전문/자유직을 ‘경영/전문직’으로, 나머지 직업군을 ‘일반직’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전문직과 관리직을 중산층 점수에서 우위에 두기 때문에 일반 직업군 보다는 서열척도의 상위에 두었고, ‘전업주부/학생’은 직업은 없으나 무직과는 구별되는 정체성이 분명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분리하여 총 4개의 척도로 분석하였다.²⁶⁾ 취업은 ‘취업 상태’로 측정하며, ‘1= 일용직, 2=임시직, 3=상용직, 4=고용주’로 4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취업 상태는?”이었으며, 척도는 6개(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었으며, 취업상태의 서열을 짓기 어려운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및 ⑥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불평등 인식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를 묻는 변수로서,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반적인 수준에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척도는 11개(① 매우 불평등하다 ~ ⑩ 매우 평등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신뢰는 우리사회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묻는 변수로서,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를 얼마나 믿을 수 있으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에 0점부터 ‘매우 믿을 수 있다’에 10점까지 평가해 주십시오.”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척도는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권 변수는 거주 지역의 수도권 여부에 관한 것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점을, 기타 지역의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주요 변수의 측정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25) 기타 란에 종교를 적은 경우는 없어, 응답자 5,940명이 결측치 없이 종교유무로 분류되었다.

26) 직업 범주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아도 분석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6〉 주요 변수의 측정

변수		측정 내용	측정 방법	사회계층 분류 기준	
종속 변수	행복	행복을 느끼는 정도	0= 전혀 행복하지 않다. ~ 10 = 매우 행복하다	-	
독립 변수	객관적 계층	소득	1 = 월49만 원 이하 ~ [49만원 단위] 8 = 월 350 ~ 399만원 9 = 월 400 ~499만원 ~[99만원 단위] 14 = 월 900 ~ 999만원 15 = 월 1,000만 원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 1점 부여	
		교육	1 = 미취학 2 = 초등졸(재학) 3 = 중졸(재학) 4 = 고졸(재학) 5 = 전문대졸(재학) 6 = 대졸(재학) 7 = 석사 졸업(재학) 8 = 박사 이상 졸업(재학)	전문대졸 이상 -> 1점 부여	
		주거	1 = 월세(반전세) 및 기타 2 = 전세 3 = 자가	자가 -> 1점 부여	
		통합	객관적 조건 상 (소득, 교육, 주거를 통합) 한국사회에서 사회계층 위치	0 = 하 1 = 중 2 = 상 ↓ ∑(소득+교육+ 주거) 1점 이하 = 하 2점 = 중 3점 = 상	
	주관적 계층 의식	소득	한국사회에서 '월 소득수준' 기준 자신의 사회계층 평가	1 = 하의하 2 = 하의중 3 = 하의상 4 = 중의하 5 = 중의중 6 = 중의상 7 = 상의하 8 = 상의중 9 = 상의하	∑(소득+교육 + 주거) ↓ 3점 ~ 27점
		교육	한국사회에서 '교육 수준' 기준 자신의 사회계층 평가		
		주거	한국사회에서 '주거 수준' 기준 자신의 사회계층 평가		
		통합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사회계층 평가 (소득, 교육, 주거를 통합)	0 = 하 1 = 중 2 = 상	
격차	소득	객관적 계층 변수 표준화 값과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 표준화값 차이의 절댓값	= 소득의 객관적 계층 변수의 표 준화 값 - 소득측면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 의 표준화 값		

	교육		= 교육의 객관적 계층 변수의 표준화 값 - 교육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표준화 값	
	주거		= 주거의 객관적 계층 변수의 표준화 값 - 주거 측면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표준화 값	
	통합	앞서 도출한 객관적 '통합 사회계층' 변수와 주관적 '통합 계층의식' 변수 사이의 격차	= 객관적 통합 사회계층 - 주관적 통합 계층의식	[0 ~ 2] 분포 조건과 의식 0 = 일치집단 ↓ 2 = 격차 커짐
통제 변수	연령	응답자의 만 나이	연속형	-
	성별	응답자의 성별	0 = 여성 1 = 남성	-
	건강	건강상태, 장애여부	1 = 장애 있음 2 = 장애는 아니지만 만성질환 있음 3 = 장애 없음	-
	종교	종교 유무	0 = 없음[무교] 1 = 있음[유교]	-
	직업	직업 유형	0 = 무직 1 = 주부/학생 2 = 일반직 3 = 경영/전문직	-
	취업	취업 상태	1 = 일용직 2 = 임시직(계약직) 3 = 상용직(정규직) 4 = 고용주	-
	불평등 인식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 수준 (전반적인 수준에서)	0 = 매우 불평등하다 ~ 5 = 수용할 만 한 수준이다 ~ 10 = 매우 평등하다	-
	사회적 신뢰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	0 = 전혀 믿을 수 없다 ~ 5 = 중간 ~ 10 = 매우 믿을 수 있다.	-
	수도권	수도권 여부	0 = 비수도권 1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V. 분석 결과

1. 표본특성

조사 대상자 약 594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성별, 종교의 경우 대체로 고루 분포하고, 건강의 경우 장애나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상태를 보이는 비중이 92%에 달한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26%이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와 사회적 신뢰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중간 값(11척도에서 가운데 3개 척도)의 비중이 각각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불평등과 신뢰는 ‘보통 수준’으로 보는 비중이 크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사회계층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는 ‘직업’의 경우, 유직의 경우가 72%(일반직, 70%, 경영/전문직, 2%)에 달하고, 무직의 경우가 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직업을 갖기 어려운 60대 이상의 비중이 2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유직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이 있는 경우의 취업 상태는 고용이 불안할 수 있는 일용직, 임시직이 17%(전체 표본 기준, 10%),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과 고용주가 83%(전체 표본 기준, 53%)로, 직업과 취업 측면에서 유직 비중과 고용 안정성 모두 높다고 할 만하다. 학력의 경우, 본 연구의 사회계층 분류 기준인 전문대졸업 이상이 41.5%이며, 가장 높은 비중(37.2%)을 차지하는 고졸까지 합하면, 고졸 이상이 78.7%로 전반적 학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택보유 상태에서 자가의 비중이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상 직업, 취업, 학력, 주택보유의 비중이 사회계층 관점에서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 특히 학력 및 주택보유(주거)는 본 연구의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주의할 사항이다. 이와 비교하여 월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본 연구의 사회계층 분류 기준인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의 비중은 18.8%라는 점에서 다른 사회계층 구성요소인 교육이나 주거에 비해 사회계층 관점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차이가 있다.

27) 11개 척도에서 가운데 5개 척도에 응답하는 비중은 각각 88%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신뢰 수준을 보통으로 보는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2. 기술통계량

〈표 7〉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행복	5940	6.04	1.62	0	10	
객관적 사회 계층	소득 ²⁸⁾	5921	6.94	2.73	1	15
	교육	5940	4.37	1.33	1	8
	주거	5924	2.76	0.53	1	3
	통합	5906	0.49	0.67	0	2
주관적 계층 의식	소득	5940	3.85	1.33	1	9
	교육	5940	4.29	1.53	1	9
	주거	5940	4.14	1.31	1	9
	통합	5940	0.63	0.51	0	2
격차 ²⁹⁾	소득	5921	0.81	0.77	0	15
	교육	5940	0.75	0.62	0	4.87
	주거	5924	0.99	0.82	0	6.24
	통합	5906	0.48	0.53	0	2

본 연구의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위 〈표 7〉과 같다. 종속변수인 행복의 경우 평균이 6.04점으로, 보통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양상을 보인다. 행복이 ‘보통수준’이라는 5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28.4%), 5점에서 7점 사이, 즉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행복의 비중이 전체의 70.45%를 차지하고 있다.

독립변수 중 소득의 경우, 객관적 계층으로서의 가구 월평균 총소득은 평균 300만 원 정도이며, 소득수준에 관한 주관적 계층의식은 평균, ‘하의상’에서 ‘중의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의 경우, 객관적 계층으로서의 학력은 평균 고졸이상 전문대 졸업 수준이며, 교육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은 평균 ‘중의하’에서 ‘중의중’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소득보다는 교육에 있어 스스로 자신의 계층을 높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소득의 기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5921	197.32	101.35	9.26	1500

29) 격차 변수의 경우 표에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분석결과 값을 제시하였지만, 격차 변수를 설문문항으로부터 도출하지 않고, 변수 간 관계를 통해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술통계 결과 값인 숫자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 보다는 구성요소별 상대적 크기를 감안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의 경우, 앞서 표본 특성분석에서도 보았듯, 객관적 계층으로서의 주거 보유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주거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은 교육보다는 낮지만 역시 평균 '중의하'에서 '중의중'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일지표인 통합 사회계층 측면에서 객관적 계층은 평균 0.49, 주관적 계층의식은 평균 0.63이다. 1점이 '중'의 사회계층임을 감안할 때, 객관적 조건상으로도, 주관적 인식상으로도 평균 '중'의 사회계층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래 <표 8>에서와 같이 사회계층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 조건상으로는 '하'의 계층이 61%에 달하지만, 주관적 인식으로는 '중'의 계층이 61%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중산층 귀속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에서 짙은 음영으로 표시한 영역은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일치하는 영역으로, 조건과 인식의 일치율을 보이는 경우가 전체의 약 53%이다. 이에 비해 객관적으로 하층 계층임에도 자신을 주관적으로 중층으로 의식하는 집단이 하층전체의 49%(전체 기준 30%)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상층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관적으로 중층으로 의식하는 집단이 상층 전체의 84%(전체 기준 9%)에 이른다든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조건과 인식이 일치한 그룹을 기준으로, 주관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행복이 증가하고, 인식이 낮을수록 행복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중층이 스스로를 상층이라 느낄 경우 가장 큰 평균 행복 수준을 보였고, 객관적 상층임에도 스스로를 하층으로 인식할 때 가장 작은 평균 행복 수준을 보였다.

<표 8>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 및 평균 행복 수준
 [단위: 명, %, 10점: 매우 행복]

		객관적 계층			총계
		하	중	상	
주관적 계층의식	하	1,804 (30.55) 일치 - 5.8점	357 (6.04) 하향 인식 - 5.8점	66 (1) 하향 인식 - 5.3점	2,227 (37.71)
	중	1,777 (30.09) 상향 인식 - 6.2점	1,325 (22.43) 일치 - 6.1점	505 (9) 하향 인식 - 6.3점	3,607 (61.07)
	상	21 (0.36) 상향 인식 - 7.0점	22 (0.37) 상향 인식 - 7.6점	29 (0.49) 일치 - 6.9점	72 (1.22)
총계		3,602 (60.99)	1,704 (28.85)	600 (10.16)	5,906 (100)

이처럼 조건과 인식의 불일치를 이루는 경우가 상당하고, 일정 정도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불일치, 격차 변수에 대한 탐색은 행복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 하겠다.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의 격차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이들의 불일치 정도가 커질수록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 4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3. 다중공선성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객관적 계층과 계층인식 간에는 상당 부분 유사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양자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된다.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측정된 결과, 다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각 모형의 최대, 최소, 평균 VIF를 살펴보면 아래 <표 9>와 같다.³⁰⁾

<표 9> VIF 측정 결과

	모형1(통합)	모형2(구성요소 분리)
최대 VIF	주관적 계층의식: 1.18	주거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 : 2.65
최소 VIF	직업(유형): 1.03	직업(유형): 1.04
Mean VIF	1.12	1.47

4.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독립변수인 사회계층을 크게 2가지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계층의 각 하위 구성요소(소득, 교육, 주거)를 통합하여 도출한 단일의 사회계층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고, 이후 이들 각 구성요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자 각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독립변수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30) 각 모형 내 모든 변수들의 VIF가 모두 10보다 현저히 작고, 평균(Mean VIF)이 1보다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없어,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염려되었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다중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행복)

변수		모형1(통합)		모형2(구성요소 분리)	
		β (Std.Err)		β (Std.Err)	
독립변수	객관적 계층	통합	0.03* (0.04)	소득	0.05*** (0.00)
				교육	0.01 (0.03)
				주거	0.08*** (0.06)
	주관적 계층의식	통합	0.11*** (0.06)	소득	0.03 (0.03)
				교육	0.02 (0.03)
				주거	0.08*** (0.03)
	격차	통합	0 (0.05)	소득	-0.04** (0.03)
				교육	-0.05*** (0.04)
				주거	0.08*** (0.04)
통제변수	연령	0.02 (0.00)	0 (0.00)		
	성별	0.07*** (0.05)	0.06*** (0.05)		
	건강	0.08*** (0.09)	0.08*** (0.08)		
	종교	0.04** (0.05)	0.04** (0.05)		
	직업 유형	0.02 (0.14)	0.02 (0.14)		
	취업 상태	0.04** (0.03)	0.03** (0.03)		
	불평등 인식	0.13*** (0.02)	0.11*** (0.02)		
	사회적 믿음	0.23*** (0.02)	0.22*** (0.02)		
	수도권 여부	-0.12*** (0.06)	-0.13*** (0.06)		
관측수		3770		3770	
F		50.87		38.33	
R-squared		0.14		0.16	

주1) *p<0.1, **p<0.05, ***p<0.01

주2) 모든 회귀 계수들은 표준화된 계수들임.

주3) 모형2의 소득 -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소득 기준

1) 통합 사회계층 [모형 1]

소득, 교육, 주거 측면을 통합한 단일지표로서의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모두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인식을 불문하고, 사회계층이 올라갈수록 행복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가설1, 가설2가 입증되었고, 계수값 비교를 통해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3이 확인되었다. 다만 통합모형에서 격차변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오지 않아, 가설4는 기각되었다.

2) 구성요소별 분리 사회계층 [모형 2]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사회계층의 구성요소인 소득, 교육, 주거를 분리하여 독립변수로 삼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앞서의 통합 사회계층 모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11>에서와 같이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구성요소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모형2의 회귀분석 결과표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의식	격차
소득	0.05***	0.03	-0.04***
교육	0.01	0.02	-0.05***
주거	0.08***	0.08***	0.08***

note: *p<0.1, **p<0.05, ***p<0.01

먼저 소득의 경우 객관적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행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 측면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수 값의 비교를 통해 소득의 절대 수준이 이에 대한 상대적 평가보다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있어, 가설2, 가설3이 모두 기각되었다. 소득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이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그 영향력도 객관적 계층보다 크지 않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소득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의 표본의 구성을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객관적 조건 상 교육이나 주거의 경우 사회계층 상 유리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데 반해(고졸 이상 78.7%, 자가 비중 81%), 소득의 경우 객관적 조건에서 사회계층 상 불리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즉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의 40.5%이고, 400만원 미만 가구가 67.5%에 이른다. 따라서 객관적 조건이 열악하여 객관적 조건의 향상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가 소득에 대한 상대적 평가보다 절대적 조건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행복의 상대성 논쟁에서 소득의 절대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수준에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가가 행복의 상대성 논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분석결과가 소득의 행복에의 절대적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객관적 소득이 각 개인이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에, 객관적 소득의 증가가 주관적 인식보다도 행복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일 수 있다. 개인이 생각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관적 인식보다 객관적 조건이 행복에 더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계층 상 유리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교육이나 주거의 경우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영향력이 크거나 같다는 점과 함께 고려할 때, 주관적 인식의 행복에의 영향력은 객관적 조건이 일정수준 이상 충족되었을 때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측면에서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모두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객관적 교육수준이 높아진다거나 스스로의 교육수준에 대한 사회적 계층 평가가 높다고 해서 행복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연구들이 교육을 주요한 행복 영향요인으로 분석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교육이 행복의 영향변수가 되지 못한 것은 왜일까? 고졸이상이 79%에 이를 만큼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고, 게다가 차별성이 없는 높은 학력이 더 이상 취업이나 소득,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도 못하는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학력이 올라갈수록 삶의 기대수준이 올라감에 비해, 실제 성취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것도 교육이 행복의 영향요인이 되지 못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교육의 경우 Hirsh(1976)의 지위재 논의처럼, 이제 상대적 지위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단계에 이르러 교육 수준을 높이고, 스스로에 대한 교육 수준이 높음을 인식하는 것으로는 행복을 증대시킬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의 경우,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의식, 격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거의 경우 실제 객관적 주거 수준(여

기서는 ‘자가 보유’) 및 주거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높아질수록 행복이 증가되며, 그 영향력 또한 소득이나 교육보다 상대적 크다.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주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할 분석결과는 격차변수의 행복에의 영향력이다. 모든 구성요소에 있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의 불일치, 격차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득과 교육에 있어 객관적 조건상의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불일치가 클수록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로, 조건과 인식의 괴리가 클수록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과 이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가 크다는 것은 내적 심리의 부조화 상태로서 행복이 증대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의미와 이유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 역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상 불일치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거의 경우 매우 특이한 점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격차’가 클수록 행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클수록 행복이 증가하는 것은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격차가 크다는 것은 본 연구의 격차 변수 생성 방식을 고려할 때, 두 가지 경우에 따른다. 첫째, 객관적 계층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비해 매우 높은 경우, 둘째,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매우 높은 경우이다. 먼저 객관적 계층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비해 높은 경우는 주거의 객관적 조건은 좋은데, 주거에 대한 스스로의 계층 평가는 낮은 경우이다. 본 연구의 경우, ‘주택의 보유’를 기준으로 주거의 객관적 사회계층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기타 주거의 다른 조건(주택의 상태, 위치, 가격 등)은 좋지 않아,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³¹⁾ 이런 경우는 객관적 조건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영향력이 높다는 가정(가설3) 하에서, 다른 구성요소(소득, 교육, 통합)의 결과 및 가설4와 마찬가지로 격차가 클수록 행복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주거 측면에서 격차변수가 정(+)의 방향으로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나온 결과는 두 번째 경우, 즉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매우 높은 경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주택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주거에 대한 스스로의 사

31) 본 연구에서 주택의 보유 수준이 표본의 81%에 이를 만큼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주거 측면에서 객관적 계층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주거의 경우 객관적 조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주택보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 측정의 한계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회계층 인식은 높은 경우인데, 고가의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객관적 주거 조건은 좋으나, 단지 주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 수 있고, 이 경우 객관적 조건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영향력이 높다는 동일한 가정(가설3) 하에서, 격차가 클수록 행복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논의를 통해, 주거에 대한 스스로의 사회계층 평가에는 ‘주거의 보유 여부’만이 아니라, ‘주거의 질’ 역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들의 경우, 기존문헌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대체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모든 모형에서 연령과 직업유형을 제외하³²⁾ 모든 통제변수들이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건강할수록(장애가 없을수록), 종교가 있을 경우, 취업 상태의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우리사회를 보다 평등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신뢰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행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가설의 검증 결과

〈표 12〉 가설의 검증 결과

	모형 1 [통합 사회계층]	모형 2 [구성요소 분리 사회계층]
H1	객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진다.	
	가설 입증	교육 측면만 기각
H2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진다.	
	가설 입증	소득, 교육 측면 기각
H3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가설 입증	소득 측면만 기각
H4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격차가 클수록 행복은 낮아진다.	
	가설 기각	소득, 교육 : 가설 입증 주거 : 가설 입증 (방향 불일치)

이상 가설 검증 여부를 살펴보면, 단일의 통합지표로 본 사회계층의 경우 본 연구의 가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사회계층의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인식이 모두

32) 연령이 높아진다고 행복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은 높은 노인 빈곤률(OECD 평균의 4배), 노인 자살률(OECD 평균의 거의 4배)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직업과 관련하여, 직업 유형 변수와 달리 취업 상태 변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고용 그 자체보다 고용의 안정성이 행복에 더 큰 영향요인이라는, 즉, 직업이 있더라도 고용 불안을 느낀다면 행복이 증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인식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가설1에서 가설3까지 입증되었다. 다만 가설4의 경우 기각되었다.

그러나 사회계층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분석한 경우, 주거는 본 연구의 가설에 가장 부합한 사회계층 요소이며, 행복의 주요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사회계층 구성요소들은 가설 검증에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가설1, 가설2의 경우 예외적으로 교육 측면에서의 사회계층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은 상대적 우위에 서는 것이 중요한, 지위재로 변모한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고, 가설2와 가설3의 경우 소득이 예외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행복의 상대성을 판단하는 데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일정수준 하에서는 객관적 소득이 주관적 인식보다도 행복에 주요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설4의 경우, 모든 구성요소에서 격차변수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다. 향후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측면에서의 불일치, 격차가 어떤 이유에 근거하고, 그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궁극적으로 행복을 이해하고 증대시키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4 정부 역할과 삶의 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가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객관적 사회계층 요소(소득, 교육, 주거 등) 및 주관적 계층의식을 단편적으로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객관적 사회계층 요소들을 묶어 ‘사회계층’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 나아가 사회계층 구성요소(소득, 교육, 주거)를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차원으로 나누어, 하위요소 차원의 분석을 하였다는 점, 이들 간 격차 변수를 생성하여 ‘실제와 인식’의 차이, 그 불일치의 정도가 행복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는 점 등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계층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통합 사회계층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분석한 경우에서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객관적 계층 및 주관적 계층의식 둘 다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객관적 조건상으로 사회계층이 올라갈수록, 또 스스로 높은 사회계층으로 인식할수록 행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 양극화 심화와 사회 이동성 둔화가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행복 관점에서 '사회계층' 문제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소득,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 조건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계층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결과이다. 이는 객관적 조건의 향상만으로는 행복을 담보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 것으로, 공공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객관적, 계량적 지표만이 아니라 주관적, 심리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또한 기존의 GDP 중심에서 행복이나 웰빙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하여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최근의 'beyond GDP'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노력과도 부합하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소득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계층의 영향력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행복의 상대성 논쟁과 관련하여 해석해 보면,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소득의 객관적 조건의 영향력만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재적이고 암묵적인 '일정수준'의 기준은 개인마다 상이하고 유동적이며 불분명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경우, 표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67.5%이며, 이들 스스로 소득측면에서의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 528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고려할 때, 객관적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기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수준 기준은 인간의 새로운 삶의 수준에의 적응이나, 타인과 비교하고, 상대적 지위의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성향을 고려하면,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 소득의 행복에의 영향력은 객관적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기존 연구에서 행복에 정(+의 영향요인으로 주목받았던 교육이 본 연구에서는 중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 교육수준에 있어 격차가 적고, 따라서 교육수준이 소득이나 삶의 질의 향상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한 상대적 우위(예, 명문대)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지만, 이로부터 만족감을 얻기는 힘들어 졌다는 점에서, 교육이 Hirsh(1976)의 '물질재'라기 보다는 '지위재'로 변모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이같이 교육의 변화된 특성을 보다 정치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시 단순히 학력 수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교육의 질(학교의 명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위재 성격으로 변모한 교육의 성격을 감안할 때, 교육 정책에서 양적 접근이 아닌, 교육의 질적 향상 측면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주거가 행복에 강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행복의 영향요인

으로 소득, 교육, 직업이 강조되었다면,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주거'의 행복에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객관적 조건 및 주관적 인식, 그리고 이들 간 격차 변수 모두가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계속되는 전세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주거 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날 주거가 행복,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조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 증진 측면에서 주택 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격차변수 부호에서 암시 하듯, 주택의 보유 여부(주택보급률)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 격차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건과 인식의 불일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행복의 수준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을 넘어, 행복의 성격과 속성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불일치 변수의 영향요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단일지표로서 '통합 사회계층' 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분류 기준의 자의성이다. 물론 사회계층 분류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 및 데이터의 설문에 기반을 두어 최대한 기준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의성에 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사회계층 분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개인의 '실제'와 '인식', '이들 간 차이', 즉 개인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분석모형의 적합성(R^2 값)은 높지 않다. 즉,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대신,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독립변수들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모형 적합성 문제는 불가피한 선택의 부수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대표적인 사회계층 구성요소인 '직업'에 대한 분석을 통제변수로밖에 다루지 못한 점, 그리고 통제변수로 '결혼'을 다루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향후 후속 연구들은 사회계층 구성요소로 직업을 포함하고, 충분히 다루지 못한 통제변수를 보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와 인식의 '격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행복의 수준만이 아닌 행복의 성격과 속성을 감안한 조건과 인식 간 격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 강성진.(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5-36.
- 강원택.(2014). 「사회 계층과 정치적 갈등: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강원택·김병연·안상훈이재열·최인철(편). 서울대 교수 5인의 계층 갈등 대해부!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경기: 21세기북스.
- 구교준·임재영·최슬기.(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구재선·서은국.(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25(2): 143-166.
- 금현섭·백승주.(2011). 사회보험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동.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 61-86.
- 김경동·최태룡.(1983).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계급구분.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1-30.
- 김병섭·안선민·이수영.(2015).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분석: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논총」, 53(2):97-121.
- 김병조.(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여 름호): 241-268.
- 김운태.(2010).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 「문화경제연구」, 13(1): 23-45.
- 문진영.(2012).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연구: 만족점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 「한 국사회복지학」, 64(1): 53-77.
- 박종선·황덕순.(2015).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행복하세요? 상대적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8(3): 1-23.
- 박지은·권순만.(2015).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 소득계층의 불일치와 건강 간의 연관성: 주관적 건강과 우울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8(2):95-121.
- 서광민.(2009).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득·교 육수준·직업·소득 만족도·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 대화논문집」.
- 서인석·우창빈·기영화.(2015). 주관적 웰빙과 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의 한계성 및 상 대성 검증. 「지방행정연구」, 29(1): 127-152.
- 송한나·이명진·최셋별.(2013). 한국 사회의 객관적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간 격차 결정요인 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6(3): 97-119.
- 신광영.(2003). 한국의 사회계급과 불평등실태: 서베이 자료분석을 넘어서. 「경제와사회」, 59: 32-54.
- 신승배.(2015).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41(2): 183-208.
- 안상훈.(2014). 「한국 복지정책의 균열: 가치관에서 이해관계로. 강원택·김병연·안상훈이재열·최 인철(편). 서울대 교수 5인의 계층 갈등 대해부!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경기: 21세기북스.
- 우창빈.(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 공정책의 이론, 논 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 윤인진·김상돈.(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21(2): 153-185.
- 이병훈·윤정향.(2006).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0(여름 호):111-140.
- 이승중·기영화·김윤지·김남숙.(2013). 커뮤니티웰빙 지표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비교연구: AHP 기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7(2):313-337.
- 이양호·지은주·권혁용.(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정치학회보」, 47(2): 25-43.
- 이재열.(2007). 「한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의 변화와 전망. 정운찬·조홍식 편.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 서울대출판부.
- 이재열.(2014).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강원택·김병연·안상훈이재열·최인철(편). 서울대 교수 5인의 계층 갈등 대해부!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경기: 21세기북스.
- 이지은·강민성·이승중.(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559-588.
- 이현국·이민아.(2014).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한국행정학보」, 48(2):293-315.
- 장상수.(1996). 한국 사회에서의 주관적 계층위치. 「사회와 역사」, 49:180-212.
- 장승진.(2011). 행복의 정치경제학: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10(2): 43-66.
- 정해식.(2016).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 UN 세계행복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FOCUS」. 제31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동기.(2006). 중산층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89-109.
- 조연상.(2012). 행복지수와 한국 재정정책방향: 행복한 나라 만들기. 「재정정책논집」, 14(4):3-30.
- 최령·박재용·황병덕.(2013). 소득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의료이용: 한국 의료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3:85-107.
- 최말옥·문유석.(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행정연구」, 15(1): 277-299.
- 최인철.(2014). 「한국사회에서는 누가 행복한가? 강원택·김병연·안상훈이재열·최인철(편). 서울대 교수 5인의 계층 갈등 대해부!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경기: 21세기북스.
- 홍두승.(1983).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 회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 홍두승.(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상진.(1987). 한국 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1:121-148.
- 한준·김석호·하상응·신인철.(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 Blanchflower, D., & Oswald, A.(2004). Money, Sex, and Happiness: An Empirical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6(3): 393-415.
- Boehm, JK., Chen, Y., Williams, DR., Ryff, C., & Kubzansky, LD.(2015). Unequally distributed psychological assets: are there social disparities in optimism, life satisfaction, and

- positive affect?. *PLoS One*, 10(2):e0118066.
- Brickman, P., & Campbell, D. T.(1971). 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the good society. In Appley, M.A.(Ed.), *Adaptation Level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 Camp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117-124.
-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1976). *The Quality of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lark, A., & Oswald, A.(1996). Satisfaction and comparison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3): 359-381.
-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Diener, E., & Seligman, M. E.(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ie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1):1-31.
- Diener, E., Suh, E., Lucas, E., & Smith, H. L.(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uesenberry, J. (1949). *Income, Savings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asterlin, R.(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David and M. Reder(Eds.), *Nations and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 Easterlin, R.(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35-47.
- Frank, R.(2005). *Does absolute income matter?* In L. Bruni & P. L. Porta (Eds.), *Economics and Happiness: Framing the Analysis*. New York: Oxford Univ Press.
- Frank, R.(2011). *The Darwin economy: liberty, competition, and the common goo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ey, B., & Stutzer, A.(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402-435.
- Gans, H.(1974).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Boston: Basic Books.
- Graham, C.(2009). *Happiness around the world: the paradox of happy peasants and miserable millionair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aham, C.(2011). *The Pursuit of Happiness*. Brookings Institute Press, US.
- Graham, C., & Felton, A.(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4(1):107-122.
- Hagerty, M., & Veenhoven, R.(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Wealth of Nations: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 Haller, M., & Hadler, M.(2006). How Social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ocial Indicator Research*, 75(2): 169-216.
- Helliwell, J., & Putnam, R.(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Royal Society. Biology*, 359:1435-1446.
- Hirsch, F.(1976). *Social Limits to Growth*.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 Inglehart, R.(1990). *Cultural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Foa, R., Peterson, C., & Welzel, C.(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3:264-285.
- Jackman, M., & Jackman, R.(1983). *Class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ohnson, W., & Krueger, R.(2006). How Money Buys Happi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Linking Financ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4): 680-691.
- Kahneman, D., & Krueger, B.(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3-24.
- Kriesberg, J.(196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Rank and Behavior. *Social Problem*. 10:334-353.
- Layard, R.(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New York: The Penguin Press.
- Luttmer, E.(2005). Neighbors as Negatives: Relative Earnings and Well-Be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3): 963-1002.
- Mammen, S.(1980). Perceived Adequacy of Income: An Element of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 Maslow, A.(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Matras, J.(1975). *Social Inequality, Stratification and Mobilit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Michalos, A.(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MD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347-413.
- Oshio, T., Nozaki, K., & Kobayashi, M.(2011).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in Asia: Evidence from nationwide surveys in China, Japan, and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4(3): 351-367.
- Oswald, A.(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107(445): 1815-1831.
- Rasmussen, H. N., Scheier, M. F., & Greenhouse J.B.(2009) Optimism and physical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37:239-256.

- Stevenson, B. & Wolfers, J.(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NBER Working Paper*, No. 14282.
- Stiglitz, J., Sen, A., & Fitoussi, J.P.(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www.stiglitz-sen-fitoussi.fr/documents/rapport_anglais.pdf
- Tatarkiewicz, W.(1976). *Analysis of Happiness*, Warsaw: Polish Scientific Publisher.
- Turner, J.(1984). *Social Stratification: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Vanneman, R., & Cannon, L.(1987). *The American Perception of Clas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Vanneman, R., & Pampel, F. C.(1977). The American Perception of Class and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June): 422-437.
- Veenhoven, R.(1990).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Veenhoven, R.(1999). The Four Qualities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39.
- Veenhoven, R.(2000). Well-being in the Welfare State: Level Not Higher, Distribution Not More Equitabl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2(1): 91-125.
- Veenhoven, R.(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33-45.
- Veenhoven, R., & Hagerty, M.(2006). Rising Happiness in Nations 1946-2004: A Reply to Easterli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9(3): 421-436.
- Veblen, T.(1899). *A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Modern Library.
- Verme, P.(2011).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7(1): 111-137.
- Welsch, H.(2009). Implications of happiness research for environmental economics. *Ecological Economics*, 68:2735-2742

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 of Social Status on Happiness: A Focus o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Yeon-Kyeong Lee & Seung-Jong Lee

There is a need for complementary attention to two aspects of the study of 'the impact of income on happiness sparked by the Easterlin's paradox. It is the need to study the effects of social status considering the human desire and competition for social position and the need for research on subjective perceptions and indicators to complement the limits of objective indicators.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ocial status on happiness, dividing social status into an objective condition and a subjective perception.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had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but the influence of perceived status on happiness was relatively more significant. A specific analysis of the sub-elements of the two aspects of social status identified that the 'gap'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tatus can be a major factor in happiness. This study is noteworthy in that the results identified that subjective social status and the gap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tatus could be important factors in happiness.

【Keywords: social status, happiness, objective status, subjective status, gap】